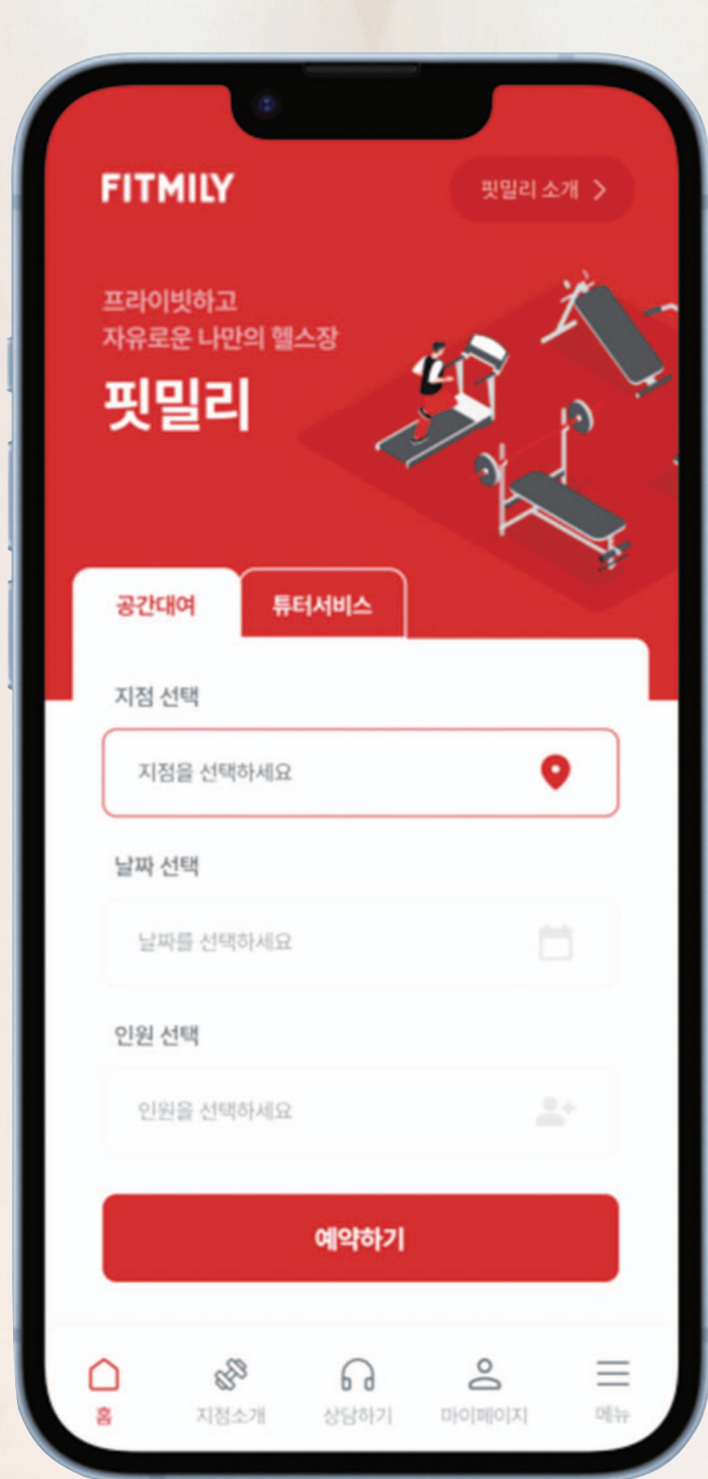


더오르노 STARTUP 핏밀리



FITMILY



개인 맞춤형 운동 공간·관리 서비스

- 1인에서 최대 4인까지 시간제로 이용 대어 프로그램
- 비대면·프라이빗 시장 흐름·스포츠 복합 문화공간
-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 지원·짐 웨어 제품도 '눈길'



핏밀리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헬스케어 흐름을 예측해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며, 개인 맞춤형 운동 공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전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의 흐름은 치료 위주의 메디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웰니스(wellness)로 영역을 넓힌 지 오래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해피니스(happiness) 혹은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인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개념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스포츠 시장의 흐름은 1인 PT샵과 크로스핏 등 단체운동으로 형성되는 등 개인 운동과 그룹 운동으로 나뉘었다.

무작정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거나 유행하는 운동을 따라 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목과 방식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운동이 자신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여겨지며 보다 즐겁고 지속 가능한 맞춤 운동을 찾아 나서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맞춰 헬스케어 흐름을 예측해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며, 개인 맞춤형 운동 공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광주 동구 AI창업캠프에 위치한 핏밀리(FITMILY, 대표 채일원)다.

운동이 좋아 피트니스 산업에 뛰어들어 채 대표는 수년간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운영 방법을 고민하다 창업에 나섰다.

특히 지난 2021년 신산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일

반 헬스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채 대표는 이를 자신의 사업과 전략으로 삼았다.

고심 끝에 대표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핏밀리를 선보였다.

핏밀리는 채 대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을 보며, 국내 스포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게 됐고, 경험과 비대면·프라이빗으로 넘어가는 시장의 흐름을 더한 시스템이다.

33㎡(10평) 남짓한 운동 공간을 최소 1인에서 최대 4인까지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어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운동 콘텐츠,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 스포츠 복합 문화공간이다.

특히 초보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낮은 허들과 복합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공간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웹, 앱을 통해 희망하는 공간, 일자, 인원수를 선택해 결제 시 고객님들만 볼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해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비돼 있는 기구들 외 자신의 장비로 다양한 운동 및 활동을 펼치며 개인 또는 가족, 친구들과 편하게 스포츠를 하거나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핏밀리 공간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채일원 대표

핏밀리는 이전의 스포츠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어디든 손쉽게 갈 수 있게 '공간'을 증설, 단순 운동 공간이 아닌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채 대표는 짐 웨어(Gym Wear)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채 대표는 기본적인 짐웨어 기능성은 물론이고 스타일과 개성을 중요시 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

이고 있다.

특히 기존 짐웨어의 틀을 깬 원단 가공 방법(엔자임 텀블워싱)을 사용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높였다.

모든 짐웨어 제품을 피트니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피트니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남성이 주요 소비층으로 아들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최상의 착용감과 패적함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채일원 핏밀리 대표는 “운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운 운동 경험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가치를 높이고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눈 앞의 이익보다는 항상 고객 가까이에서 고객의 만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현대차 ST1,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실증 돌입

덤핑형·무빙플로어형 2대 활용·재활용품 수거 등

현대차가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실증사업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행사를 열었다.

현대차는 시연 행사에서 친환경 차량 ST1 기반의 스마트 수거차 2대(덤핑형, 무빙플로어형)로 재활용품을 수거 및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ST1 덤핑형 스마트 수거차는 위아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하는 적재함 측면문과 낮은 지상고를 갖췄다. 작업자는 차량 옆면에서 재활용품을 손쉽게 차에 실을 수 있으며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적

재물을 내릴 수 있다.

ST1 무빙플로어형 스마트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의 전·후 이동이 가능해 작업자가 차량에 오르지 않고도 재활용품의 상·하차가 가능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무거운 재활용품을 적재 및 하역하기 편리하다.

실증 기간 스마트 수거차를 운영하는 작업자는 엑스블 솔루션을 착용한다.

현대차는 작업자가 착용 로봇 '엑스블 솔루션'을 입고 폐기물을 적재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엑스블 솔루션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산업용 착용 로봇으로, 사용자의 상완(어깨)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을 크게 줄

여준다.

친환경 차량인 ST1을 활용해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수거하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차량 소음을 줄일 수 있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민원이 감소하는 등 다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ST1의 장점인 저상 플랫폼으로 승하차가 빈번한 작업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수거 설루션을 적용해 폐기물 처리 사업의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성북구와 체결한 '친환경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현대차는 10월까지 6개월간 성북구에서 ST1 기반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활용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정식 사업화 및 도입 지역 확대를 추진할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행사를 열었다. ST1 무빙플로어형 스마트 수거차에 폐기물을 상차하는 모습.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도시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